

## 제35회 과학의 날 기념식 **컬러화보**

제35회 과학의날 기념식이 4월 20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거행되었다. 과학기술계 인사 8백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우리 앞에는 지식과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정부는 “창의력을 가진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개발, 과학기술에 친숙한 사회풍토 조성 및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시대를 여는 일에 정책기조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학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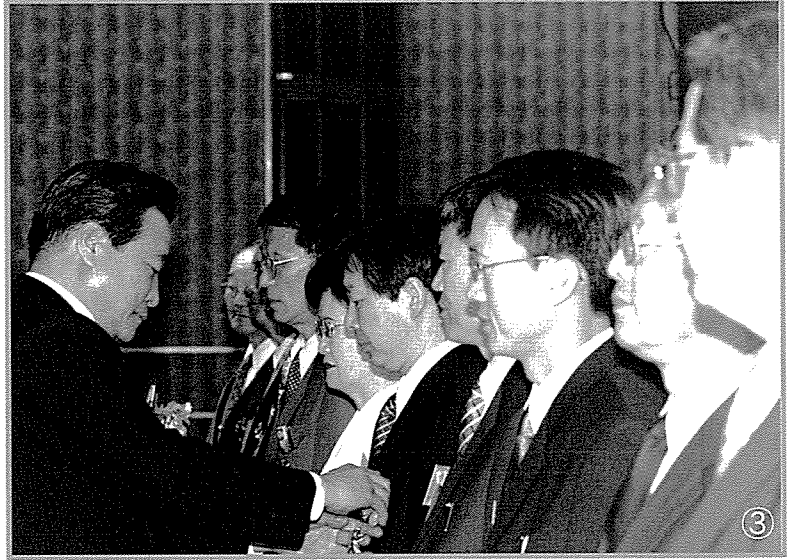
이날 기념식에는 과학기술 진흥유공 훈·포장 및 대한민국의학기술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계인사가 참석하여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설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사진 ①~②>



▶ 이한동 국무총리가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대표에게 훈·포장을, 그리  
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4명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③~④>



# 기대를 바꾼다



▼ 기념식이 끝난 후 채영복 과학기  
술부 장관이 대표수상자 이외의  
과학기술진흥유공자들에게 훈·포  
장과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

<사진 ⑤~⑥>



# “국민과 함께하는 科學技術文化時代 열 터”

존경하는 전국의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본산인 이곳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35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고 계신 전국의 500만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간의 뛰어난 공적으로 오늘 훈·포장을 받으신 분들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식과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부문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마련했고 국가신용등급도 최근 두 단계나 올라갔습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요기간산업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만큼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정보화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창의력, 불굴의 도전정신과 우수한 과학기술적 자질은 지식기반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대 위에 세계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과학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98년 정부일반회계의 3.6%였던 연구개발 예산이 금년에는 4.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5%까지 늘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의 정부내 위상을 격상시켰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입국의 제도적 틀을 구축했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훈·포장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큰 도약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창의력을 가진 우수인재가 과학기술계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수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과학기술을 외면하고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와 함께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5월중에 혁신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과학기술인이 다른 어떤 직업인보다도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과학자 아버지』, 『과학자 어머니』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업적과 능력이 탁월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공적을 기리고,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조의 전당』을 건립하여 산학연 과학기술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유망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분야별 국가기술지도서 작성하고, 우리의 우수분야인 IT를 기반으로 하면서 BT, NT, ST, ET, CT를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하여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신기술을 자동차·선박 등의 전통산업과 접목시켜 우리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복지 관련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황사현상에 대한 예보기술 등 관련기술도

(93쪽에 계속)